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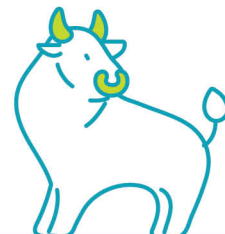


2021년 상반기 한우 수출동향 리포트

홍콩 및 수출잠재국 대상



2021 First half year Review of
Hanwoo Export Information
Targeting Hong Kong and
potential exporting countries





Contents

I . 조사 개요	1
II . 홍콩	3
1. 국가 동향	3
1) 경제 · 무역 동향	3
2) 외식 및 쇠고기 소비 시장 트렌드	6
2. 쇠고기 수입 동향	7
3. 언론 보도 현황	11
III . 수출 잠재 국가 동향	14
1. 마카오	14
2. 아랍 에미리트	19
3. 캄보디아	24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한우 수출 중점 국가인 홍콩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인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우 수출과 관련한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고 수출 대상 국가의 거시적 동향 파악

■ 조사 필요성

- 국가별 기초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한우 수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우 수출입사,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통해 한우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마련

■ 조사 기준

- 통계 자료 : (홍콩) 2021년 1월 ~ 4월 / (그 외) 2009년 ~ 2018년
- 보도 기사 : 2021년 1월 ~ 2021년 5월

■ 조사 내용

- (홍콩) 경제 · 무역 동향, 쇠고기 소비 · 수입 현황, 언론 보도 동향
- (그 외) 경제 동향, 축산물 소비 현황, 언론 보도 현황

■ 참고 자료

- 홍콩 통계청 (www.censtatd.gov.hk)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통계 자료 (FAO STAT, <http://www.fao.org/faostat/en/#home>)
- 미국 농무부 통계 자료 (USDA/FAS, <https://apps.fas.usda.gov/psdonline/>)
- 홍콩 현지 주요 일간지 (ALJAZEERA, Hangqiu news, South China Morning Post)
- 마카오 현지 주요 일간지 (Macau Business, Weibo)
- 아랍 에미리트 현지 주요 일간지 (UpurduPoint, Green Queen)
- 캄보디아 현지 주요 일간지 (The Phnom Penh Post)

II 홍콩

1. 국가 동향

1) 경제 · 무역 동향

■ (경제)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2021년 1분기의 고무적인 성장률은 대외 무역 실적 호조와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점¹⁾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자 대면 활동과 관련된 숙박 서비스 및 식품 서비스 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한 10.7%(2021년 1분기)임
-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단기적으로 홍콩의 대외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산업별로 균등하지 못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정부는 광범위한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백신 접종 및 구호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 홍콩의 주요 경제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홍콩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20년 1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인구 (백만)	7.50	7.48 ¹⁾	7.47 ²⁾
경제성장률 (%)	△9.1	△2.8	1.9
물가상승률 (%)	2.0	0.6	0.4
실업률 (%)	2.1	6.6	6.8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1 : 2020년 연중(2020.01~06) 기준

2 : 2020년 말 기준, 잠정치임

1) 2020년 4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음, <표1-1> 참고

■ (무역) 2021년 1~4월 기준 총 상품 수출액은 14,930억 달러(HK\$)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 총 상품 수입액은 15,917억 달러(HK\$)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5% 증가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 (수출) 2021년 1~4월 기준 총 상품 수출액은 14,930억 달러(HK\$)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하였음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 2021년 1~4월 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對영국(127.96%) 수출액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對대만(45.40%) 對인도(39.89%) 순으로 증가하였음 <표1-2>

[표1-2] 홍콩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HK\$, %)

구분	2020년 1월~4월 수출액(a)	2021년 1월~4월 수출액(b)	증가율(b/a-1)*100
중국	665,894	893,688	34.21
미국	70,063	84,271	20.28
대만	29,310	42,617	45.40
인도	27,169	38,007	39.89
일본	34,859	35,455	1.71
베트남	25,588	33,406	30.55
영국	12,277	27,987	127.96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1년 1~4월 기준 비철금속(123.75%), 비금속광물 제조품(70.56%), 전자 기계와 장치(39.44%), 통신 및 녹음기기(26.47%) 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발전기계 및 장비(△13.79%),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품목(△2.33%)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표1-3>

[표1-3] 홍콩 주요 수출 품목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HK\$, %)

구분	2020년 1월~4월 수출액(a)	2021년 1월~4월 수출액(b)	증감률 (b/a-1)*100
전자 기계와 장치	483,389	674,038	39.44
통신 및 녹음기기	185,451	234,547	26.47
비금속 광물 제조품	32,096	54,742	70.56
비철금속	15,826	35,409	123.75
발전기계 및 장비	30,872	26,616	△13.79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품목	18,714	18,278	△2.33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수입) 2021년 1~4월 기준 총 상품 수입액은 15,917억 달러(HK\$)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5% 증가하였음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 2021년 1~4월 기준 對대만(42.50%), 對중국(27.16%), 對한국(25.50%)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對미국 수입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1-4>

[표1-4] 홍콩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HK\$, %)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액(a)	2021년 1월~4월 수입액(b)	증감률(b/a-1)*100
중국	526,725	669,786	27.16
대만	158,281	225,558	42.50
한국	91,885	115,319	25.50
일본	76,578	91,421	19.38
말레이시아	51,765	59,096	14.16
미국	57,507	57,433	△0.13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1년 1~4월 기준 비금속광물 제조품(57.83%), 전자 기계와 장치(32.81%), 통신 및 녹음 기기(30.22%), 기타 제조 품목(26.41%),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18.67%)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발전 기계 및 장비(△30.96%)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표1-5>

[표1-5] 홍콩 주요 수입 품목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HK\$, %)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액(a)	2021년 1월~4월 수입액(b)	증감률(b/a-1)*100
전자 기계와 장치	525,619	698,066	32.81
통신 및 녹음기기	178,342	232,241	30.22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102,041	121,089	18.67
기타 제조 품목	70,371	88,960	26.41
비금속 광물 제조품	34,414	54,317	57.83
발전 기계 및 장비	40,127	27,705	△30.96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외식 및 쇠고기 소비 시장 트렌드

■ 2021년 홍콩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 한우 마케팅 방안 필요

※ 출처 : Marketing Interactive, 2021.01, 딜리버루가 예측한 2021 홍콩 식품 트렌드

- 글로벌 배달앱 딜리버루(Deliveroo)가 선정한 2021년 홍콩의 유망 식품 트렌드는 ▲건강을 위한 대체 식품, ▲유행 음식 따라하기, ▲해외 음식 체험, ▲변화하는 식사 습관임
- (건강을 위한 대체 식품) 설문조사에 응한 50%가 귀리 및 견과류 기반의 유제품 대안을 선택할 계획이며,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8%임
- 2020년에 딜리버루를 통해 무알코올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는 30%로 건강을 위한 식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음
- (유행 음식 따라하기) 코로나19로 인해 홈쿡, 홈카페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SNS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따라하는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 달고나커피, 수제 파스타, 발효종 빵 등의 식품은 홍콩에서도 젊은 층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에서 레시피, 제조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음
- 설문 응답자의 48%가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섭취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25%는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칸나비디올(CBD) 함유 식품을 체험하고 싶다고 답하였음
- (해외 음식 체험) 설문 응답자의 45%가 2021년에 새로운 일식 레스토랑을 방문할 계획이며, 36%는 한국 음식점을, 22%는 태국 음식점을 방문할 계획으로 응답함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식도락 여행’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 음식뿐만 아니라 현지 분위기를 재현한 식당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 (변화하는 식사 습관) 코로나19로 인해 테이크아웃, 포장 구매 등의 배달 문화가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조사됨

2. 쇠고기 수입 동향

■ 냉장 쇠고기(HS 0201) 수입액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냉장 쇠고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8% 증가한 약 417백만 달러(HK\$)임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호주로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58% 증가한 약 159백만 달러(HK\$)임
- 2021년 1~4월 기준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8% 증가한 9백만 달러(HK\$)로 수입액 기준 6위를 차지하였음 <표1-6>, <그림1-1>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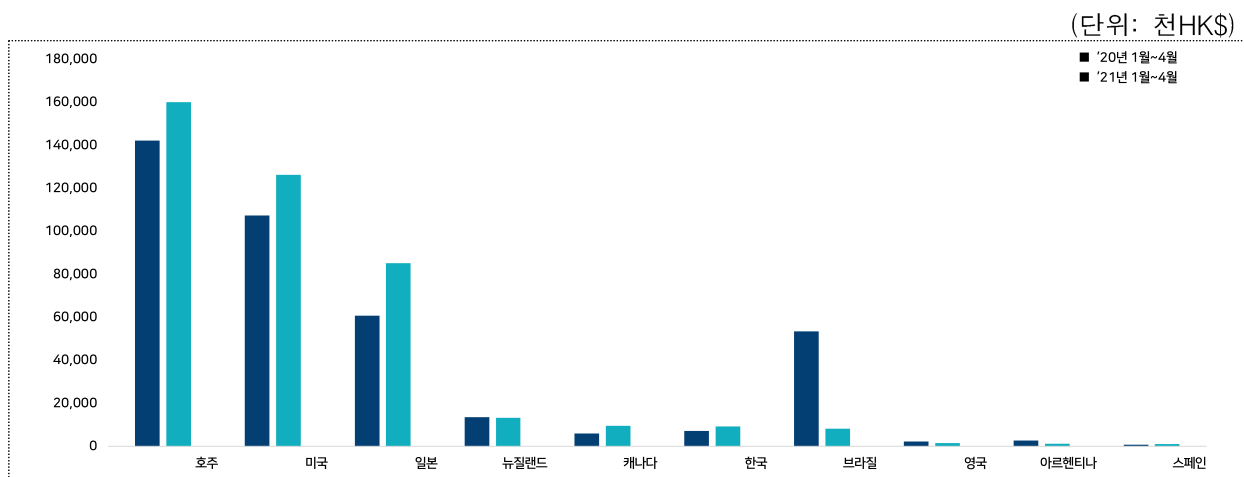
[표1-6] 홍콩 국가별 냉장 쇠고기 수입액 추이(2021.01~2021.04)

(단위: 천HK\$, %)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액(a)	2021년 1월~4월 수입액(b)	증감률(b/a-1)*100	점유율(%) ¹⁾
총 수입액	398,087	417,228	4.81	100.00
호주	142,055	159,921	12.58	38.33
미국	107,238	126,155	17.64	30.24
일본	60,607	85,055	40.34	20.39
뉴질랜드	13,485	13,103	△2.83	3.14
캐나다	5,919	9,395	58.73	2.25
한국	7,122	9,109	27.90	2.18
브라질	53,419	8,153	△84.74	1.95
기타	8,242	6,337	△23.11	1.52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 1) 점유율은 2021년 1월~4월까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

[그림1-1] 홍콩 냉장 쇠고기 수입액 상위 10개 국가 (2021.01~2021.04)



■ 냉장 쇠고기(HS 0201) 수입량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냉장 쇠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13% 감소한 약 3,058톤 임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호주로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96% 감소한 약 1,160톤이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86% 감소한 약 14톤으로 수입량 기준 8위를 차지함 <표1-7>, <그림1-2>

[표1-7] 홍콩 국가별 냉장 쇠고기 수입량 추이(2021.01~2021.04)

(단위: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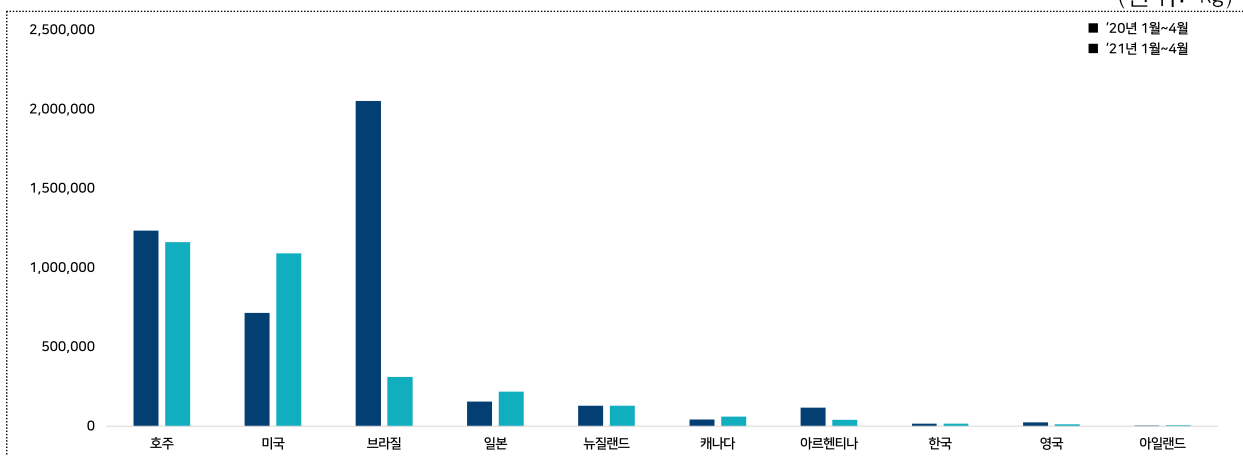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량(a)	2021년 1월~4월 수입량(b)	증감률(b/a-1)*100	점유율(%) ¹⁾
총 수입량	4,505,707	3,058,119	△32.13	100.00
호주	1,234,619	1,160,974	△5.96	37.96
미국	715,524	1,091,448	52.54	35.69
브라질	2,053,066	311,318	△84.84	10.18
일본	154,968	217,531	40.37	7.11
뉴질랜드	129,250	129,200	△0.04	4.22
캐나다	41,879	60,056	43.40	1.96
아르헨티나	117,594	39,672	△66.26	1.30
한국	15,155	14,721	△2.86	0.48
영국	23,270	11,938	△48.70	0.39
아일랜드	3,841	5,328	38.71	0.17
기타	16,541	15,933	△3.68	0.52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 1) 점유율은 2021년 1월~4월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

[그림1-2] 홍콩 냉장 쇠고기 수입량 상위 10개 국가 (2021.01~2021.04)

(단위: kg)



■ 냉동 쇠고기(HS 0202) 수입액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냉동 쇠고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8% 증가한 약 3,762백만 달러(HK\$)임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브라질로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9% 감소한 약 1,592백만 달러(HK\$)임 <표1-8>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표1-8] 홍콩 국가별 냉동 쇠고기 수입액 추이(2021.01~2021.04)

(단위: 천H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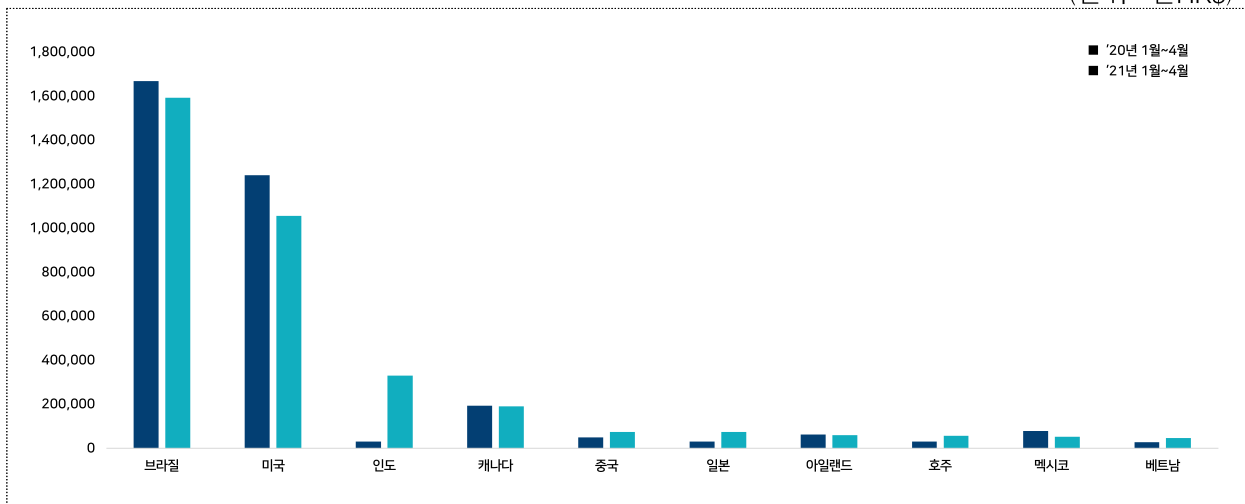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액(a)	2021년 1월~4월 수입액(b)	증감률(b/a-1)*100	점유율(%) ¹⁾
총 수입액	3,671,894	3,762,970	2.48	100
브라질	1,668,827	1,592,296	△4.59	42.31
미국	1,240,598	1,056,024	△14.88	28.06
인도	30,112	329,905	995.59	8.77
캐나다	193,741	191,121	△1.35	5.08
중국	49,113	74,119	50.92	1.97
일본	30,886	73,558	138.16	1.95
아일랜드	62,587	59,789	△4.47	1.59
기타	396,030	386,158	△2.49	10.26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 1) 점유율은 2021년 1월~4월까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함

[그림1-3] 홍콩 냉동 쇠고기 수입액 상위 10개 국가 (2021.01~2021.04)

(단위: 천HK\$)



■ 냉동 쇠고기(HS 0202) 수입량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냉동 쇠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7% 증가한 약 98,854톤 임

- 2021년 1~4월 기준 홍콩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브라질로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04% 감소한 약 50,718톤 임 <표1-9>

- 인도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도축장 폐쇄 등을 원인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임

※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표1-9] 홍콩 국가별 냉동 쇠고기 수입량 추이(2021.01~2021.04)

(단위: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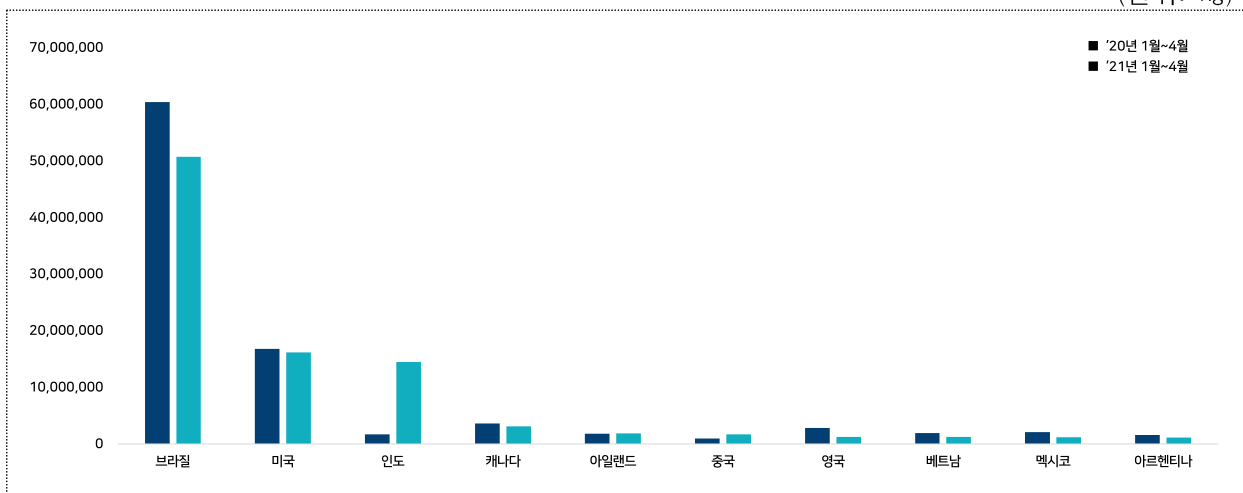
구분	2020년 1월~4월 수입량(a)	2021년 1월~4월 수입량(b)	증감률(b/a-1)*100	점유율(%) ¹⁾
총 수입량	97,520,271	98,854,048	1.37	100
브라질	60,406,654	50,718,710	△16.04	51.31
미국	16,763,630	16,213,374	△3.28	16.40
인도	1,709,641	14,463,982	746.02	14.63
캐나다	3,609,356	3,095,111	△14.25	3.13
아일랜드	1,825,783	1,859,806	1.86	1.88
중국	944,455	1,718,189	81.92	1.74
영국	2,803,768	1,226,946	△56.24	1.24
기타	9,456,984	9,557,930	1.07	9.67

출처 : 홍콩 통계청(www.censtatd.gov.hk),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 1) 점유율은 2021년 1월~4월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

[그림1-4] 홍콩 냉동 쇠고기 수입량 상위 10개 국가 (2021.01~2021.04)

(단위: kg)



3. 언론 보도 현황

■ COVID-19 관련 경제 · 무역 · 사회

백신 공급과 국민 소득 증대 방안 모색으로 2021년 홍콩 경제성장을 5.5% 전망

- 2021년 1분기 홍콩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8%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한 경기회복으로 불안정한 경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이 필요함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비지출과 관광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대외 무역에 기대고 있음
- 정부는 홍콩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여 활발한 소비활동 유도과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번역·요약본 》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6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으로 고전하였으나, 2021년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다.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큰 성장폭으로 확인된다. 이번 성장률은 주로 수출에 의존한 회복으로 불안정한 경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비자 지출과 관광 등의 소비 분야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 홍콩의 관광업은 중국발 방문객의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경 폐쇄 상태와 더불어 예방 접종률이 낮아 관광 수입이 적은 상황이다.

홍콩 경제학자 아이리스 팡(Iris Pang)은 홍콩이 중국 및 주변 국가와 국경을 개방하려면 무엇보다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콩은 최근 2년간의 정치적 불안과 악화된 미·중 관계로 인해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견뎌왔다. 홍콩 재무부 장관 폴 찬(Paul Chan)은 2021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국민의 소득 증대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여 원만한 경제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ALJAZEERA, 2021.05, 홍콩 경제 반등, 그러나 회복은 고르지 않을 것

- 홍콩 통계청은 2021년 1분기 홍콩의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24.4% 증가했다고 밝혔음
- 전문가들은 홍콩의 수입 및 수출이 크게 성장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빠른 경제 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 번역·요약본 》

지난 13일 홍콩 통계청은 2021년 1분기 홍콩의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 물량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홍콩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32%, 전체 상품 수입액은 2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의 홍콩 전체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4%,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8% 증가하며,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홍콩의 수입과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신속한 통제와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수입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 밖에도 대량의 수출입 화물이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홍콩에 무역 이익을 주고 있다.

출처 : Huanqiu news, 2021.05, 홍콩의 전체 상품 수출입 물량 2021년 1분기 급격하게 증가

- 한편, 요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직원과 고용주, 가게와 방문객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번역·요약본 》

요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캐리 램(Carry Lam) 행정 장관은 요식업계 종사자의 최소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이 확인되고, 방문객이 리브홈세이프(Leave Home Safe) 앱을 통해 방문 사실을 확인한다는 조건으로 12시까지 한 테이블당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영업을 허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든 직원이 접종을 완료하고 방문객이 최소 1회의 접종을 완료하였을 때는 테이블당 8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백신 투약을 강요할 수 없고, 고객의 앱 사용 또한 의무화할 수 없기에 허울뿐인 완화 정책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4, 요식업계 완화 정책에 요식업계 종사자 실망

■ 쇠고기 관련

-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678,000톤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홍콩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홍콩은 음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고품질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높은 상황임

《 번역·요약본 》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678,000톤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홍콩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홍콩 인구 수에 대입할 경우, 1인당 하루 쇠고기 소비량이 약 226g 정도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관광객의 쇠고기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홍콩의 쇠고기 소비량은 높은 편이다.

미슐랭 스타 2개의 광둥식 레스토랑 총괄 셰프 시우(Siu Hon-Chi)는 홍콩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 관련 음식은 전골, 야키니쿠, 일상 요리에 이르기까지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이며, 고급스러운 맛과 풍미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고품질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 같다고 인터뷰하며, 홍콩에서 쇠고기 수요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쇠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높은 품질의 쇠고기를 홍콩 내에서 맛보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1, 홍콩 사람들의 쇠고기 소비 습관

III 수출 잠재 국가 동향

1. 마카오

1) 도시 개황

- 마카오 인구는 2019년 기준 642,500명으로 대한민국 제주도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면적은 30.5km²로 서울의 1/20 수준임
- 2019년 기준 마카오의 국내총생산은 538.6억 달러(USD)이며, 1인당 명목 GDP는 81,151달러(USD)로 스위스(83,717달러, 2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구매력평가(PPP)²⁾로 보면 114,363달러(USD)로 전 세계 2위 수준임
- 2019년 기준 마카오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3,940만 명이며 그중 중국인이 2,8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홍콩, 대만, 대한민국, 필리핀, 일본, 미국 순으로 조사됨

2) 경제 동향

■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 마카오의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7% 증가, 상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1.7% 감소하였음
- 마카오 통계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계 소비 지출을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시키는 결과를 끌어냈으며,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동은 2019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출처 : 마카오 통계청(www.dsec.gov.mo)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마카오 정부는 2021년 카지노 수익이 약 162억 8천만 달러(USD)에 이를 것으로 기대, 2021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출처 : IAG, 안정적인 긍정적 2021년 경제 성장 기대, 2021.01

2)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3) 축산물 소비 동향

■ 마카오 육류 생산 및 수출·입량 추이 (2009년~2018년)

※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 (생산 및 수출량) 2009년~2018년간 마카오의 육류 수출량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며, 육류 생산량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조사됨³⁾
- 마카오는 쇠고기 품목에 대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쇠고기 평균 생산량은 약 0.93천 톤으로 크지 않은 상황임 <표2-1>

[표2-1] 마카오 쇠고기 생산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평균 생산량	연평균 성장률 (%) ¹⁾
쇠고기	0.9	0.9	0.9	0.8	0.8	1	1	1	1	1	0.93	1.2
돼지고기	18	19	20	20	21	21	21	21	21	22	20.4	2.3
닭고기	32	31	34	41	41	33	33	34	35	35	34.9	1.0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2-2] 마카오 축산물 수입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09년	7	24	14
2010년	7	24	15
2011년	8	26	17
2012년	5	33	17
2013년	5	33	17
2014년	6	25	20
2015년	5	25	20
2016년	6	27	22
2017년	8	28	23
2018년	8	28	26
평균 수입량	6.4	27.3	19.2
연평균 성장률 (%) ¹⁾	1.8	1.5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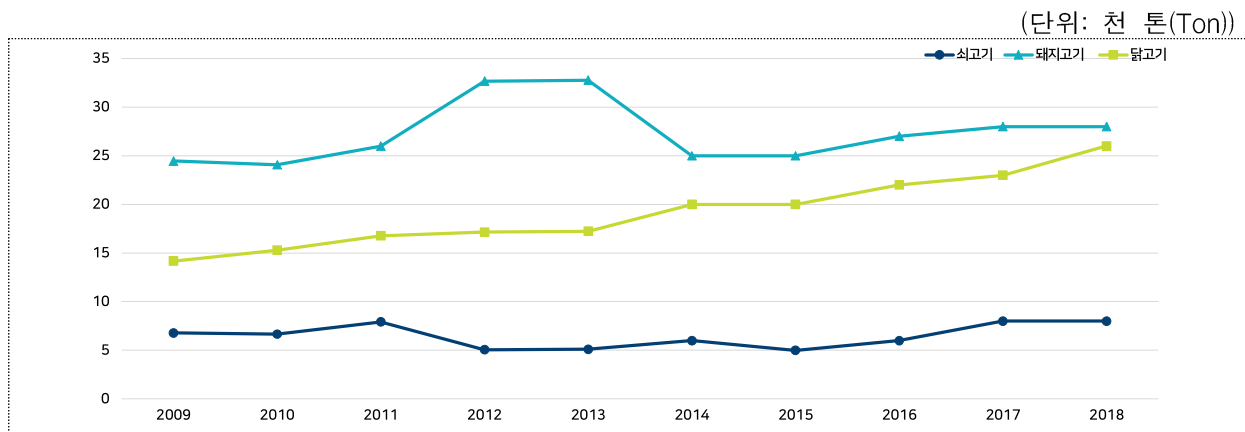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FAO 통계지표에 따르면, 천 톤 미만의 경우 '0' 으로 표기, Imputation methodology 형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

○ (수입량) 2009년~2018년간 마카오의 평균 쇠고기 수입량은 약 6.4천 톤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2% 수준임 <표2-2>, <그림2-1>

-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수입량을 보인 품목은 돼지고기로 약 28천 톤이며, 쇠고기 수입량은 약 8천 톤임 <표2-2>

[그림2-1] 마카오 축산물 수입량 추이 (2009~2018)



■ 마카오 육류 소비량 추이 (2009년~2018년)

※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 2009년~2018년 연평균 마카오의 육류 소비량은 62.4천톤으로 조사되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순으로 조사됨

- 2018년 기준 쇠고기 소비량은 약 8천 톤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1% 수준임 <표2-3>

[표2-3] 마카오 축산물 소비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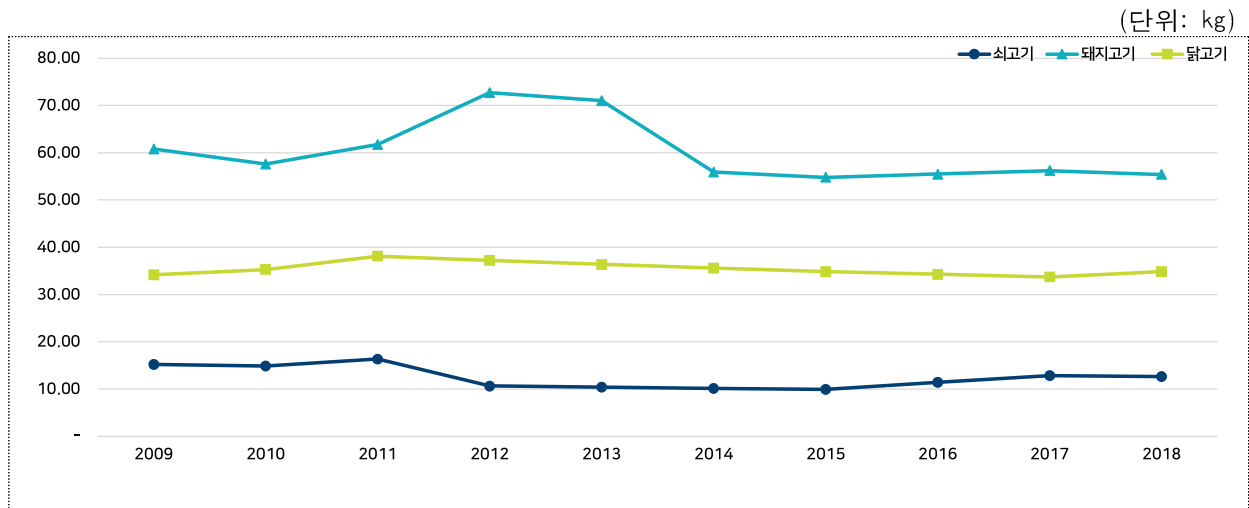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09년	8	32	18
2010년	8	31	19
2011년	9	34	21
2012년	6	41	21
2013년	6	41	21
2014년	6	33	21
2015년	6	33	21
2016년	7	34	21
2017년	8	35	21
2018년	8	35	22
평균 소비량	7.1	34.8	20.5
연평균 성장률 (%) ¹⁾	0.6	1.2	2.4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18년 기준 마카오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약 102.91kg이며, 돼지고기 55.4kg, 닭고기 34.8kg, 소고기 12.7kg 순으로 조사됨⁴⁾

[그림2-2] 마카오 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009~2018)



4) 2018년 기준 마카오 인구 : 63만 1600여명

4) 언론 보도 현황

- 마카오 경제 재정부 장관 와이 농(Wai Nong)은 2021년 1분기 마카오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경제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인 회복기에 놓여있음을 시사하며, 마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코로나19 전과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번역·요약본 》

와이 농(Wai Nong) 경제 재정부 장관은 2021년 1분기 마카오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와이 농 장관은 입법부 연설 자리에서 마카오 지역 경제가 과도기적인 회복기에 놓여있으나 일부 분야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마카오 당국은 카지노 등 게임산업 분야에서 1,300억 파타카(MOP, 약 18조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2021년 정부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122억 파타카(MOP, 1조 7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4월까지 집계된 수익은 월평균 80억 파타카(MOP, 1조 1천억원)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카오 인근 광둥성에서 발생한 집단 코로나19 감염 사례 등과 같은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마카오 방문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Macau Business, 2021.05, 마카오 1분기 지역 경제 약 1% 위축

- 2021년 1분기 마카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82.5% 증가하였으며, 중국이 홍콩 및 마카오의 대외 무역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경제 호조가 무역수지 회복 및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번역·요약본 》

마카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수출액은 34.6억 파타카(MOP), 수입액은 297.4억 파타카(MOP)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82.5%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對중국 30.5%, 對홍콩 21.3%, 對미국 20.9%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對유럽은 3.8% 감소하였다.

홍콩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증가가 마카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크게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출처 : Weibo, 2021.04, 2021년 1분기 마카오 무역 통계

2. 아랍 에미리트

1) 국가 개황

- 아랍 에미리트 인구는 2019년 기준 9,771,000명으로 서울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면적은 83,600km²로 한반도 면적의 37% 정도 크기임
- 2019년 기준 아랍 에미리트의 국내총생산은 4,211.4억 달러(USD)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9,179.8달러(USD)로 전 세계 24위 수준, 구매력평가(PPP)⁵⁾는 63,589.8달러(USD)로 전 세계 7위 수준임
- 2019년 기준 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1,673만 명이며, 인도(2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160만 명), 영국(120만 명) 순으로 조사됨
 - 최근 중국, 오만, 필리핀의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상황임

2) 경제 동향

■ 2020년 3분기부터 반등, 2021년 경제성장률 3.1% 증가 예상

※ 출처 : TradeArabia, 2021년 UAE의 경제 전망 긍정적, 2021.05

- 국제 통화기금(IMF)은 2021년 아랍 에미리트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예측하였음
 - 아랍 에미리트의 경제는 2020년 3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2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10월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의 주요 관광, 교통 및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3) 축산물 소비 동향

■ 아랍 에미리트 육류 생산 및 수출·입량 추이 (2011년~2020년)

※ 출처 : USDA/FAS(<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

○ (생산 및 수출량) 2011년~2020년간 아랍 에미리트의 육류 수출량은 없거나⁶⁾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돼지고기를 제외한 쇠고기와 닭고기만 생산하고 있음 <표2-4>

-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돼지고기 수급이 거의 없음

[표2-4] 아랍 에미리트 육류 생산량 추이 (2011~2020)

(단위: 천 톤(Ton),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 (%) ¹⁾
쇠고기	15	16	16	15	16	16	16	18	19	18	16.5	2.0
닭고기	40	37	41	43	45	46	47	47	50	50	44.6	2.5

출처 : USDA/FAS(<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수입량) 2011년~2020년간 아랍 에미리트의 평균 쇠고기 수입량은 약 108.1천 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임 <표2-5>, <그림2-3>

- 2020년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420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는 105천 톤으로 조사됨 <표2-5>

[표2-5] 아랍 에미리트 육류 수입량 추이 (2011~2020)

(단위: 천 톤(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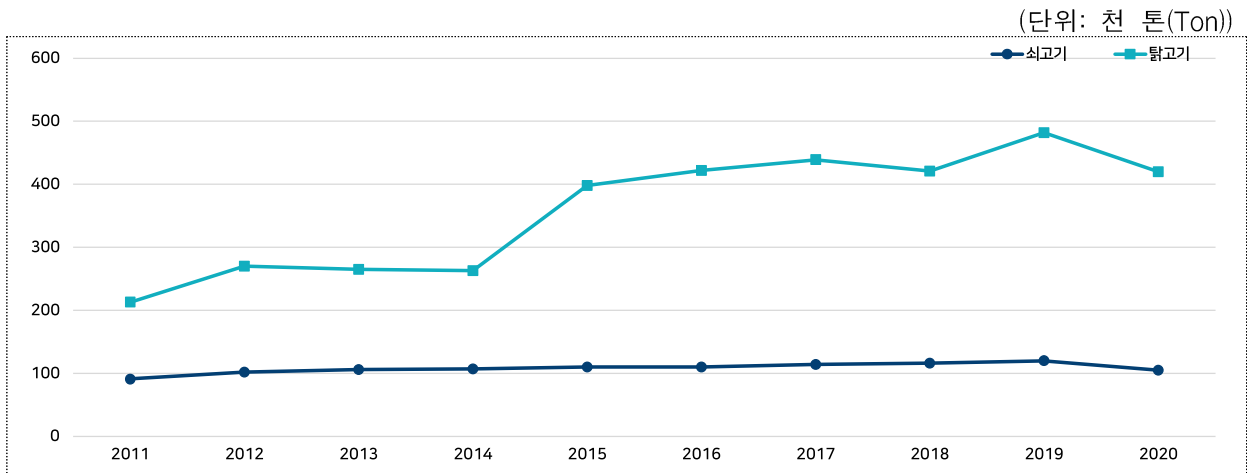
구분	쇠고기	닭고기
2011년	91	213
2012년	102	270
2013년	106	265
2014년	107	263
2015년	110	398
2016년	110	422
2017년	114	439
2018년	116	421
2019년	120	482
2020년	105	420
평균 수입량	108.1	359.3
연평균 증가율 (%) ¹⁾	1.6	7.8

출처 : USDA/FAS(<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6) USDA/FAS 통계 자료의 경우, 1,000톤 이하 수출량은 '0'으로 표기됨

- 쇠고기 수입량은 완만한 변동 폭을 보이며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2-3>

[그림2-3] 아랍 에미리트 축산물 수입량 추이 (2011~2020)



■ 아랍 에미리트 육류 소비량 추이 (2011년~2020년)

- 2011년~2020년간 아랍 에미리트의 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약 124.6천 톤, 연평균 증가율은 약 2%임 <표2-6>

※ 출처 : USDA/FAS(<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Query>)

- 2020년 기준 닭고기 소비량은 435천 톤으로 조사되며, 쇠고기는 123천 톤으로 나타남 <표2-6>

[표2-6] 아랍 에미리트 축산물 소비량 추이 (2011~2020)

(단위: 천 톤(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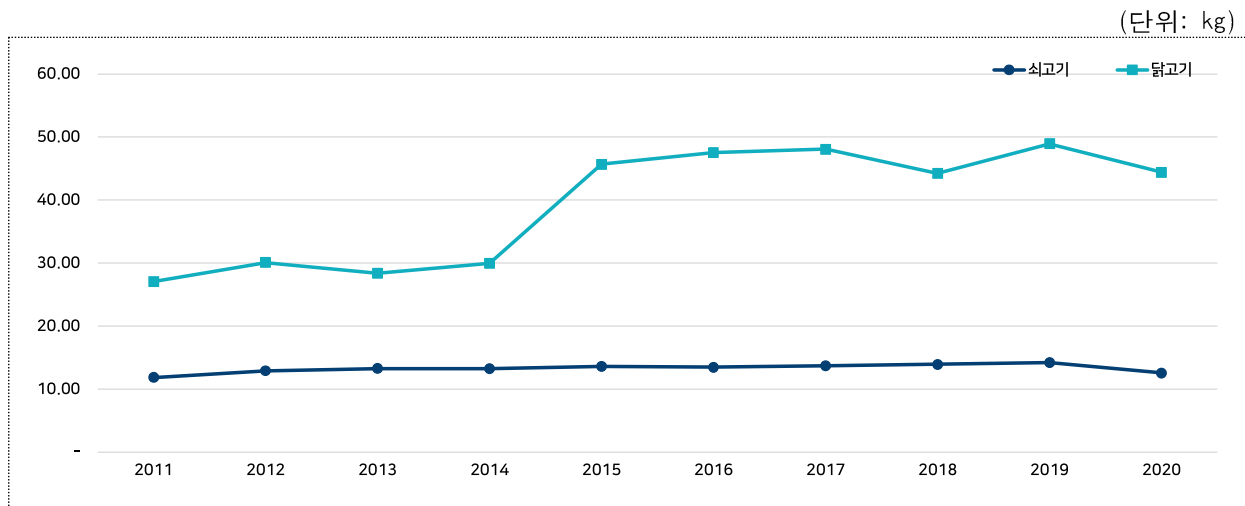
구분	쇠고기	닭고기
2011년	106	242
2012년	118	275
2013년	122	261
2014년	122	276
2015년	126	423
2016년	126	445
2017년	130	456
2018년	134	426
2019년	139	478
2020년	123	435
평균 소비량	124.6	371.7
연평균 증가율 (%) ¹⁾	1.7	6.7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0년 기준 아랍 에미리트의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약 12.5kg, 닭고기는 44.4kg으로 조사됨 <그림2-4>
- 아랍 에미리트의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기간 호텔, 식당 등이 영업 중지가 진행되었기 때문임

[그림2-4] 아랍 에미리트 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011~2020)



4) 언론 보도 현황

- 2021년 아랍 에미리트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이라크와 국가 관계 발전을 위해 30억 달러(US\$)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및 이라크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번역·요약본 》

미국 연방 경쟁력 통계 센터(FCSC)에 따르면 국가 내 관광산업 경쟁력 관련 5개 지수에서 국가 세계 상위 국가에 아랍 에미리트가 포함되었다. FCSC에서 발표한 여행 및 관광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랍 에미리트는 자동차 렌트 업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지속가능성 및 개발 지수 6위, 관광 인프라 품질 지수 7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효과 부분 8위를 차지했다.

2020년 전 세계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랍 에미리트의 관광 및 여행을 포함한 경제 부분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침체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아랍 에미리트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리서치 기관 Horizon Research Group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랍 에미리트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지수는 아랍권 국가들 중 1순위로 나타났다.

2021년 아랍 에미리트는 이라크와 경제,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위해 30억 달러(US\$)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 투자가 이라크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UpurduPoint, 2021.05, UAE의 경제는 여전히 높을 것

- 아랍 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의 대체 육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육류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번역·요약본 》

걸프 지역(이란,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통칭)은 육류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일부 채식 위주의 소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의 육류 소비의 15~20%가 2025년까지 채식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두바이 푸드 아울렛에서 비건 패티 햄버거의 판매량이 2020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는 등 향후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Green Queen, 2021.04, 아랍 소비자들의 채식 식단 수용으로 대체 단백질에 대한 인식 급증

3. 캄보디아

1) 국가 개황

- 캄보디아 인구는 2019년 기준 16,490,000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의 1/3수준이며, 면적은 181,035km²로 한반도 면적의 0.8배 정도 크기임
- 2019년 기준 캄보디아의 국내총생산은 270.8억 달러(USD)이며, 1인당 명목 GDP는 1,621달러(USD)로 전 세계 148위 수준, 구매력평가(PPP)⁷⁾는 4,335달러(USD)로 전 세계 138위 수준임
 - 수도인 프놈펜의 경우, 1인당 명목 GDP가 2,200달러(USD)로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음
- 2019년 기준 캄보디아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661만 명으로 조사됨
 - 2020년 캄보디아 관광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80.2% 감소한 131만 명 수준까지 감소함

2) 경제 동향

■ 2021년 경제성장률 4% 예상, 2022년까지 5.5%의 경제성장률 기대

※ 출처 : Phnom Penh Post, 2021년 4%의 경제 성장 전망, 2021.04

-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2022년에는 5.5% 수준으로 예상됨
 - 2021년 기준, 산업 분야별로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부문 성장률이 7.1%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증가 및 對중국 농산물 수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 정부는 백신의 효과와 무역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발표함

7)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3) 축산물 소비 동향

■ 캄보디아 육류 생산 및 수출·수입량 추이 (2009년~2018년)

※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 (생산 및 수출량) 캄보디아의 육류 수출량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며, 대부분 자국에서 생산된 육류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됨⁸⁾
- 캄보디아는 육류 생산량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조사되며, 대체적으로 자국 내 육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2-7>

[표2-7] 캄보디아 육류 생산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평균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 (%)
쇠고기	75	73	73	73	73	67	68	67	68	67	70.4	△1.2
돼지고기	115	105	110	99	99	108	106	107	96	86	103.1	△3.2
닭고기	31	28	28	28	27	26	26	27	27	27	27.5	△1.5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수입량) 캄보디아의 경우, 육류 수입량이 2016년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자급자족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육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수입량을 보인 품목은 닭고기로 약 15천 톤이며, 쇠고기 수입량은 약 3천 톤임 <표2-8>

[표2-8] 캄보디아 축산물 수입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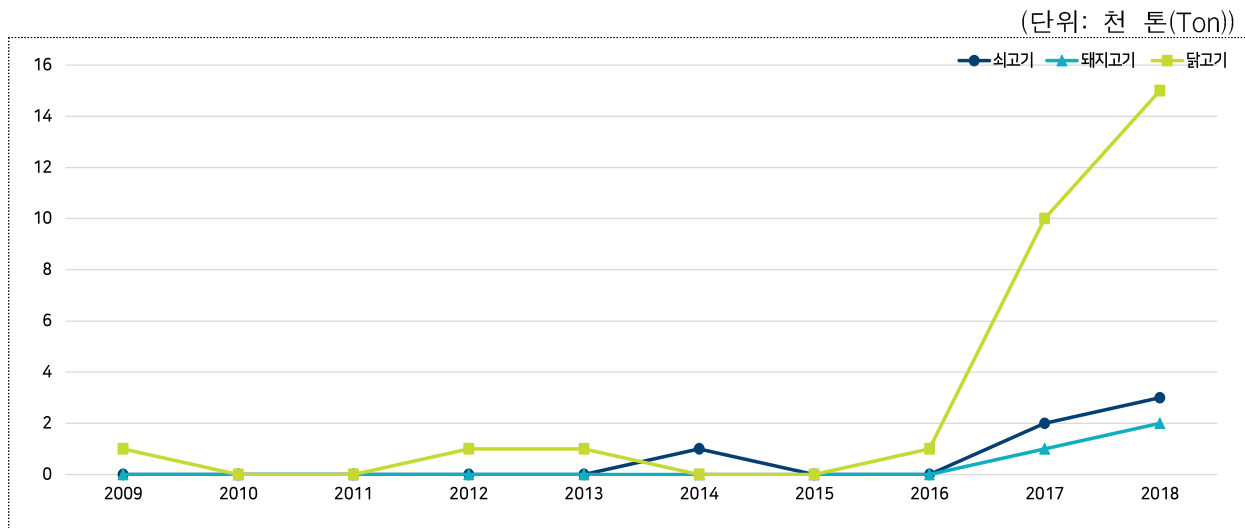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09년	0	0	1
2010년	0	0	0
2011년	0	0	0
2012년	0	0	1
2013년	0	0	1
2014년	1	0	0
2015년	0	0	0
2016년	0	0	1
2017년	2	1	10
2018년	3	2	15
평균 수입량	0.6	0.3	2.9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주 : 천 톤 미만의 경우 '0'으로 표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8) FAO 통계지표에 따르면, 천 톤 미만의 경우 '0'으로 표기, Imputation methodology 형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음

[그림2-5] 캄보디아 축산물 수입량 추이 (2009~2018)



■ 캄보디아 육류 소비량 추이 (2009년~2018년)

※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 2018년 기준 캄보디아의 육류 소비량은 돼지고기 88천 톤, 쇠고기 70천톤, 닭고기 40천톤 순으로 나타남<표2-9>

[표2-9] 캄보디아 축산물 소비량 추이 (2009~2018)

(단위: 천 톤(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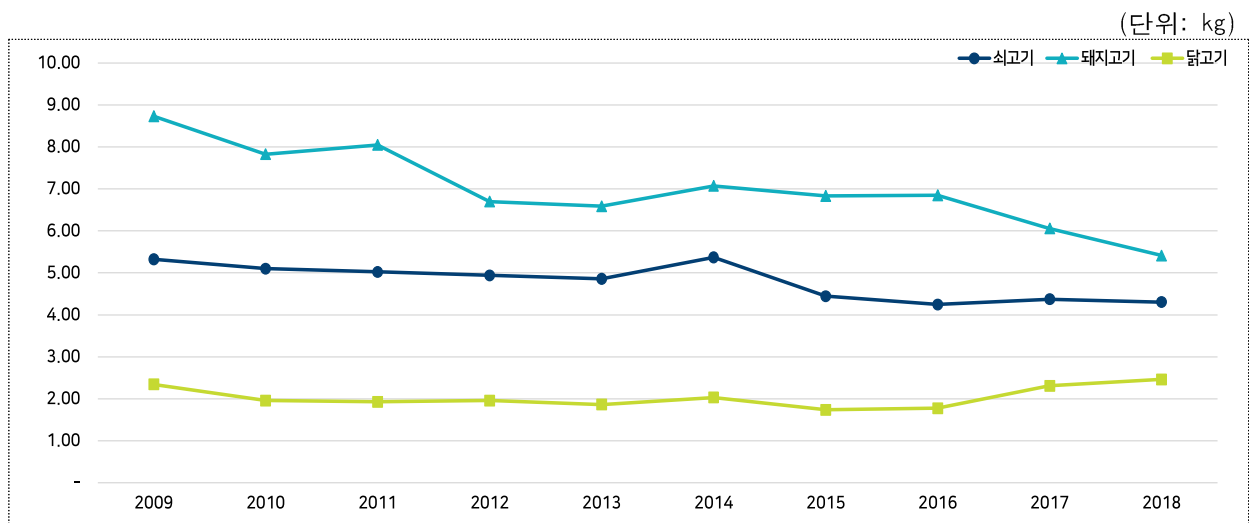
구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09년	75	123	33
2010년	73	112	28
2011년	73	117	28
2012년	73	99	29
2013년	73	99	28
2014년	82	108	31
2015년	69	106	27
2016년	67	108	28
2017년	70	97	37
2018년	70	88	40
평균 소비량	72.5	105.7	30.9
연평균 증가율 (%) ¹⁾	△0.8	△3.6	2.1

출처 :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home>)

주 : 1) (최종값/초기값)^{1/기간}-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18년 기준 캄보디아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총 12.18kg이며, 그중 돼지고기가 5.42kg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쇠고기 4.31kg, 닭고기 2.46kg으로 조사됨
- 돼지고기 소비량은 점차 줄어드는 한편, 닭고기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쇠고기는 인구수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2-6>

[그림2-6] 캄보디아 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009~2018)



4) 언론 보도 현황

- 캄보디아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산업 부문 간 불균등한 회복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하고, 가구별 복지와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 4월부터 통금 및 지역간 이동 제한이 발동된 상태임

《 번역·요약본 》

ASEAN 거시 경제 연구실(AMRO)이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캄보디아 경제는 2020년 경제성장률 - 3.1%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봉쇄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AMRO 관계자는 캄보디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증세를 막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등의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은 캄보디아 산업이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부문의 반등과 전자 및 자전거 등의 기타 경공업의 성장으로 2021년 7.1%, 2022년 7.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캄보디아 내 지역간 이동제한은 202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건설업의 회복에 따라 작년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 부양책으로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부문에 노동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할 예정이다.

출처 : The Phnom Penh Post, 2021.05, 2021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 4% 예측

2021 First half year Review of Hanwoo Export Information,
Targeting Hong Kong and potential exporting countries

한우 수출 동향 리포트 2021년 상반기

- 홍콩 및 수출잠재국 대상 -

발 행 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기획 및 편집	주식회사 우리누리
발 행 일	2021년 6월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커피아 회관 2, 3층
연 락 처	02-522-3606
이 메 일	hanwoolove@daum.net
홈 페이지	http://www.hanwooboard.or.kr/
